

“벤치 작전 통했다” KIA 대타 김규성 역전 결승타

페이크 번트 슬러시 성공 키움에 5-3
불펜 무실점 소방수 정해영 8S 수확



KIA 타이거즈가 김규성의 결승타와 불펜진의 철벽 호투를 앞세워 키움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KIA는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키움과 경기에서 5-3으로 승리했다. 전날 13-1 대승을 거둔 KIA는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며 시즌 16승(18패·승률 0.471)을 기록, 같은 날 롯데에 0-6으로 패한 SSG와 공동 6위가 됐다. 최하위 키움(12승 27패·승률 0.308)은 4연패 수렁에 빠졌다.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킨 불펜과 벤치의 작전이 만든 승리였다.

선발 김도현이 6이닝 4피안타 5탈삼진 3실점으로 제 몫을 다한 가운데 전상현(0%이닝)-이준영(0%이닝)-조상우(1이닝)-정해영(1이닝 이상 무실점)이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정해영은 시즌 8번째 세이브를 수확했고 7회 1사 1루에 마운드에 오른 이준영이 승리를 쟁겼다.

선취점은 KIA가 먼저였다. 1회 초 위즈덤의 불넷과 김도영, 최형우의 연속 안타로 1사 만루 기회를 잡은 KIA는 김선빈의 희생플라이로 1-0으로 앞섰다.

하지만 1회 말 곧바로 리드를 내줬다. 김도현이 키움 송성문과 최주환에게 연속 불넷을 허용했고 카디네스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았으나 진

루를 허용, 1사 2, 3루 위기에 놓였다. 이어 키움 푸이그에게 땅볼로 실점한 뒤 김태진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헌납했다.

곧바로 KIA도 추격에 나섰다. 2회 말 정해원의 불넷과 박정우의 몸에 맞는 볼에 이어 박찬호가 불넷을 골라내며 만루 찬스를 잡았다. 이어 위즈덤이 2타점 적시 1루타를 날렸고, KIA는 3-2 역전에 성공했다.

김도현도 안정을 되찾으며 3, 4회 삼자범퇴 이닝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하지만 5회 카디네스에게 동점 적시타를 헌납했고 6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뒤 전상현에게 넘겼다.

KIA는 7회 초 박정우와 박찬호의 연속 안타와 도루, 김도영의 불넷을 묶어 1사 만루 득점권 찬스를 잡았지만 후속타 불발로 점수를 내지 못했다.

3-3으로 팽팽했던 승부는 8회 갈렸다. 오선우의 불넷과 한준수의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 정해원 타석에서 이범호 감독의 작전이 성공했다.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김규성이 페이크 번트 슬러시로 우전안타를 때려 2루 주자를 불러들이는데 성공했다. 이어진 1사 2, 3루에서는 박찬호 타석 때 3루 주자 한준수가 폭투로 홈을 밟으면서 1점을 추가했다.

8회 말에는 조상우의 위기관리능력이 빛났다. 8회 말 2사 후 키움 푸이그와 김태진에게 연속 안타를 내주면서 1, 2루 위기에 놓였지만 아웃카운트 1개를 땅볼로 잡으면서 이닝을 정리했다.

이후 KIA는 마무리 정해영을 투입해 9회를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IA와 키움 경기. 3-3으로 팽팽히 맞선 8회초 무사 1, 2루에서 KIA 김규성이 우전안타로 결승점을 뽑아낸 뒤 주루코치와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삼자범퇴로 깔끔히 정리하며 2점 차 승리를 챙겼다.

한편, 전날 경기에선 대기록이 수립됐다. 양현종이 6이닝 5피안타 1실점 5탈삼진의 호

투로 시즌 첫 승(3패)을 신고하며 통산 180승 고지를 밟았고 KBO 최초로 2,100탈삼진(2,102개)을 기록했다.

최형우는 6회 무사 1, 3루에서 홈런을 터뜨리

며 역대 4번째 통산 400홈런을 기록했다. 최형우는 만 41세 4개월 19일에 400홈런을 달성해, 종전 최고령 기록이던 이승엽(38세 9개월 16일)을 넘어섰다.

조해원 기자

서석중 용인대총장기 중고점도대회 정상 우뚝

단체전 결승 성남중에 4-0 완승
개인전 옥하준 우승·윤찬희 3위

서석중학교가 제28회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중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을 휩쓸었다.

서석중은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금·동메달을 획득했다.

가야중, 광명중, 원통중을 연달아 꺾고 단체전 4강에 진출한 서석중은 상인전중과의 경기에서 2-2로 팽팽히 맞선 끝에 대표전에서 옥하준(3년)이 박효관을 머리치기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성남중을 상대로 권민수(선봉),

문율(2위), 윤찬희(중견), 허경도(부장)가 차례로 승리하며 4-0 완승을 거두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개인전에서는 옥하준이 맹활약했다. 4강에서 부원중 한서준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옥하준은 이상엽(동평중)에게 먼저 한 점을 내줬지만 특기인 머리치기로 연속 득점에 2-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개인전 정상에 섰다.

윤찬희(3년)도 뛰어난 경기력으로 4강에 진출했으나 아쉽게 패해 개인 3위에 올랐다.

정동진 서석중 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의 위상을 높인 검도부가 자랑스롭다”며 “오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원 기자

광주FC 김경민 “무실점 승리 정말 간절했다”

김천전 선방쇼 1-0 승 이끌어

“직전 두 경기에서 10실점을 했기에 이번엔 무실점 승리가 정말 간절했습니다”

어린이날 6,238명의 홈팬 앞에서 무실점 승리를 지켜낸 광주FC 골키퍼 김경민(34)은 누구보다 감격스러운 얼굴이었다.

광주는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5 12라운드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오후성의 페널티킥골과 골키퍼 김경민의 연이은 선방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광주는 리그 5승(4무 3패·승점 19)을 기록했다.

이날 승리는 더 특별했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그엘리트(ACLE) 8강 알 힐랄전(0-7 패)과 직전 울산 현대전(0-3 패)에서 연달아 10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불안을 드러냈으나 홈에서 다시 무실점을 기록하며 반전의 시작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 중심엔 골키퍼 김경민이 있었다. 이날 김경민은 박상혁의 단독 돌파 등 김천의 5차례 유효슈팅을 모두 막아내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경기 후 만난 김경민은 “무실점으로 이겼다는 게 가장 기쁘다. 전반 11분 김천에게 골을 내줬을 때가 가장 위기였다. VAR로 취소되고 우리가 PK를 얻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돌



김경민

아봤다.

김경민은 경기 후 이정호 감독으로부터 “김경민 덕분에 이긴 경기였다”는 극찬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경민은 “감독님께 그런 말을 들은 건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그런 칭찬은 큰 힘이 된다. 지난 경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더 버텨주지 못한 장면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순간이 가장 속상하다. 감독님의 칭찬은 발전의 동력”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이날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김경민에겐 어린이날의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그는 “어린이날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날인 만큼 사실 축구장에 찾아오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직권을 하러 경기장에 와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ACLE에서 얻은 경험도 앞으로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은 “상대를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나 역시 어떤 방식으로 상대 선수를 더 압박하게 만들지, 빠른 슈팅을 막기 좋은 포지션은 어디인지 등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탄탄한 수비로 팀을 돕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해원 기자

전남 선수단 전국실업육상선수권 ‘금빛 질주’

남보하나 3000m 장애물 대회신
진도군청 금 2·은 1·동 4개 획득
여수시청 이윤솔 세단뛰기 우승

전남 선수들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9회 KTF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연이어 시상대에 올랐다. 특히 진도군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창단 3년 만에 중·장거리 강팀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진도군청 남보나는 여자 일반부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10분 29초 65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레이스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대회 신기록(종전기록 10분 37초 41)도 수립했다.

염태건도 남자 일반부 800m에서 1분 51초



남보하나

84의 안정된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여자 일반부 10,000m에 출전한 이유정은 36분 41초 10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동메달도 연이어 나왔다. 남자 일반부 10,000m에 출전한 이주니는 31분 1초 48의 기록으로 3위에 올랐고, 이서빈은 여자 일반부 800m에서 2분 14초 09, 1500m에서 4분 33초 62를 각각 기록하며 두 종목에서 모두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진도군청은 단체 종목에서도 저력을 과시했다. 남자 6000m 계주와 여자 3200m 계주에서 모두 3위에 오르며 팀워크와 조직력에서도 높

은 평가를 받았다.

기록 경쟁이 치열했던 남자 1,500m에서는 김동욱(나주시청)이 4분 2초 29를 기록해 한태건(고양시청·4분 1초 58)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조상현(목포시청)은 남자 400m 허들에서 52초 37을 기록하며 3위로 입상했다.

필드 종목에서도 전남 선수들의 활약은 이어졌다. 여자부 세단뛰기에서는 이윤솔(여수시청)이 11m 92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남자부 멀리뛰기에서는 김우중(여수시청)이 6m 53을 기록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1,500m에서는 신소망(나주시청)이 4분 25초 51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김은정(광양시청)은 여자 높이뛰기에서 1m 65, 박서진(목포시청)은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5m 73을 기록하며 나란히 3위에 입상했다.

조해원 기자

광주시청 고승환·이재성·강다슬 아시아육상선수권 출격

광주시청 고승환(28), 이재성(24), 강다슬(33)이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대표팀에 나란히 발탁됐다. 고승환은 남자 200m와 400m계주, 이재성은 남자 400m계주, 강다슬은 여자 400m계주에 출전해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다.

전남에서는 이은빈(해남군청·19), 신소망(나주시청·32), 남보하나(진도군청·31), 박서진(목포시청·32)이 각각 4×100mR, 800m, 3000m장애물, 해머던지기에서 출전한다. 세단뛰기 김장우(국군체육부대·26)도 나선다.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45개 종목에 45개국 약 1,200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대한육상연맹은 지난달 30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 이번 대회에 나설 대표선수단 108명을 확정했다.

광주시청 고승환 이재성 강다슬은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선수다. 특히 고승환과 이재성은 한국 남자 육상의 간판 스프린터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400m 계주 동메달을 합작한 주역이다.

고승환은 지난 2019년 육상 국가대표로 발탁



고승환



이재성



강다슬

됐고 2022년부터 남자 200m 부문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승환은 현재 남자400m계주 한국신기록 주인공이기도 하다. 고승환은 지난해 6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국영(광주시청), 이시문(안양시청), 이윤문(서천군청)과 호흡을 맞춰 38초68로 10년 만에 한국신기록(종전 38초74)을 갈아치웠다.

이재성은 400m계주에서 고승환과 호흡을 맞춘다.

이재성은 지난해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 남자계주 금메달리스트다. 한국체대 시절 대학부를 휩쓸고 광주시청에 입단한 이재성은 성인무대에 적응하며 김국영, 고승환 등과 호흡

을 맞추는 중이다.

이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계주는 고승환과 이재성, 나마디조엘진(예천군청), 서민준(서천군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이 한 팀으로 나선다.

한국 여자 100m 대표

주자 강다슬은 400m계주 선수로 발탁됐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강다슬은 대표선발전 여자부 200m에서 4위를 하면서 실전에 복귀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육상 1600m 혼성 계주 한국신기록을 세우기도 한 강다슬은 이번 아시아육상선수권 여자 400m계주에서 김다은·김소은(가평군청), 김애영(시흥시청), 이은빈과 한팀으로 호흡을 맞춘다.

나주시청 육상팀의 간판이자 여자 중장거리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신소망은 주 종목인 800m에 나선다.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 최종 선발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기대를 모은 박서진은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메달 입상에 도전한다.

조해원 기자